무호흡

2023. 03. 16

신동해

주제

우리는 자기합리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로그라인

죽은 애인과 환상 속에서 함께하기 위해 규석은 매일 욕조 속으로 잠수한다.

S#1.(환상) 바다/낮

파도 소리와 함께 해변에서 깨어나는 규석.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저 멀리 바다로 걸어들어가고 있는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보인다.

규석이 일어난다.

규석이 손을 뻗으며 달려간다. 점점 숨이 가빠진다.

S#2. 규석의 집 안 화장실/밤

그 순간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물밖으로 나오는 규석의 상체.

초시계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는 규석. 32초

TITLE. 무호흡

S#3. 규석의 집/ 낮

규석이 칙칙하고 회색빛의 방 안에서 홀로 웅크려 있다. 방안은 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둡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규석이 잠에서 깬다.

S#4. 규석의 집 현관, 부엌/낮

규석이 현관문을 연다. 중년 여성으로 보이는 김미경(60대)이 시장가방에 무언가를 한가득 담아들고 서있다.

규석이 잠깐 멈칫하고 당황한다.

미경: 씻고 있었나보네...

규석: (수건으로 흉부의 수술자국을 가린다).....

미경: ...들어가도 되지?

규석: (수건으로 흉부의 상처를 가리며) 어.. 네..

규석이 들어가는 미경을 따라 들어가며 다급히 옷을 줏어입고 바닥에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치운다.

규석: 여긴 어쩐 일로...

미경이 부엌으로 향하며 마치 자취하는 아들 방을 보듯 이리저리 둘러본다.

미경: (시장가방에서 재료들을 꺼내며) 밥 굶고 있을 것 같아서..

규석: (불편한듯) 아... 네...

미경이 재료들을 내려놓다가 식탁에 덮어져 있는 액자를 보곤 액자를 들어본다.

바다를 배경으로 규석과 다정히 찍은 여자의 사진.

미경: (눈시울이 붉어진다 혼잣말하듯) 참 예뻤네... 우리 혜영이..

액자속 여자를 쓰다듬듯 매만지던 미경이 눈물을 훔치고는 뒤를 돌아 규석을 본다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규석.

미경: 그치?

규석: (멍하니 서서 미경을 본다)...

미경이 액자를 애틋하게 바라본다.

규석: (고민하다 읊조리듯) 저기...(망설이다) 어머니.....

미경: 응?

규석: 그만... 와주시면 안될까요?...

미경이 규석을 뚫어지게 본다. 붉어진 눈시울. 번진 화장. 규석이 시선을 피한다.

액자를 내려놓는 미경, 탁-하는 소리.

미경: .....하나만 물어보자. 왜 못 구한거야?... 같이 바다에서 놀다가 그런거라며...

규석이 고개를 떨구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미경이 규석을 보다가 장바구니를 뒤집어 재료들을 다 빼내고는 장바구니를 손에 꽉 쥐고 나가버린다. 닫히는 문소리.

액자를 다시 덮는 규석의 손.

S#5. 규석의 집 안 화장실/낮

규석이 물이 꽉찬 욕조에 발을 들인다.

앉은 채로 욕조 틀에 몸을 기대고는 초시계를 드는 규석.

초시계 스타트 버튼을 누르곤 머리를 집어넣는다.

S#6.(환상) 바다/낮

바다에서 눈을 뜨는 규석.

파도가 치고 있다. 옆을 보니, 혜영이 웃으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혜영: 일어났어?

규석: (멍하니 혜영을 쳐다보며) ...

혜영: 보고싶었어..

규석: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규석이 숨이 차는듯 괴로워한다.

S#7. 규석의 집 안 화장실/낮

숨을 참고 있는 물속의 규석. 표정이 점차 일그러지더니. 몸을 떤다. 공기방울을 두어번 뱉어내고는, 참았던 숨을 내쉬며 다급히 상체를 일으킨다.

거친 호흡을 내쉬는 규석. 규석의 행복한 얼굴.

규석이 화장실 밖을 본다. 어두운 화장실 밖. 다시 욕조를 본다.

S#8. 규석의 집 안/ 몽타주 시퀀스 (환상과 교차)

초시계 스타트 버튼을 누른다. 초시계의 숫자가 빠르게 돌아간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을 하고 있는 규석의 뒷모습. 규석이 호흡하자 배가 들어가며 갈비뼈가 보인다.

쉬- 하는 호흡소리가 들린다.

바다ㅡ 혜영의 웃는 얼굴.

혜영V.O: 다 알아... 어쩔 수 없었던 거

규석이 욕조에서 급하게 일어선다. 사방팔방으로 튀는 물.

조금 어두워진 화장실.

혜영V.O: 괜찮아... 전부.

눈을 감고 호흡을 하는 규석의 얼굴.

바다ㅡ 걸어가며 뒤돌아보는 혜영.

빠르게 돌아가는 타이머의 숫자.

물 속의 행복한 규석의 표정.

혜영V.O: 다 잊고...

어두워진 화장실. 규석이 이리저리 둘러본다.

혜영V.O: 여기서 나랑 다시 함께 하자

타이머의 숫자가 빠르게 돌아간다

바다ㅡ 혜영을 따라 걷는 규석의 얼굴.

규석: (숨을 헐떡이며)하지만... 숨을 아무리 참아도...

바다ㅡ 혜영이 멈춘다. 혜영의 시선이 내려가 규석의 흉부에서 멈춘다.

혜영: 영원히 함께할수 있어. 아주 간단해..

규석이 욕조에서 급하게 일어선다. 완전히 어두워진 화장실, 욕조에 담긴 물에 초록색 빛이 묻어 일렁인다.

혜영NA: 폐만... 뱉어내면 돼

초록빛이 규석의 얼굴에 묻어난다. 규석의 홀린 듯 멍한 얼굴.

규석: (정신을 차린듯) 뭐?

바다— 규석이 뒤돌아있는 혜영의 어깨를 잡아 돌린다. 혜영이 시체처럼 쓰러진다. 부패된 혜영의 몸, 혜영이 꺼억-꺼억-하며 기분 나쁜 숨넘어가는 소리를 낸다.

블랙.

S#9. (환상)바다/밤

규석이 바닷가에서 깨어난다. 주위를 둘러보니 어두운 밤이다.

공포에 떠는 규석.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꺼내어 후레쉬를 킨다. 후레쉬를 이리저리 비춰보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혜영의 실루엣을 보곤 일어나 혜영을 쫓는다.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없어지는 혜영에 규석은 혼란스러워하며 달리지만, 파도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댄다.

숨을 헐떡이는 규석. 가슴을 부여잡고 멈춰선다. 그때 어둠 속에서 들리는 꺼억- 꺼억- 하며 숨넘어가는 소리.

규석이 이리저리 불빛을 비추다 한곳에 멈춘다.

바닥에 흰 원피스를 입은 혜영의 누워있는 실루엣

규석: 헤...영아...?

가까이 다가가니 실루엣이 점점 잘 보이기 시작한다. 꺼억- 꺼억- 대는 소리가 점점 강해진다.

덜덜 떠는 손으로 후레쉬 불빛을 비춘다.

혜영처럼 보이는 실루엣에 덜덜 떠는 손으로 후레쉬 불빛을 비추자 혜영의 흰 원피스를 입고 부패된 몸을 가진, 규석 자신이 누워 숨 넘어가는 소리를 내고 있다.

규석이 공포에 떤다. 얼어붙은 몸.

S#10. 규석의 집 안/밤

욕조난간, 규석의 손이 올라오더니 이후 얼굴이 올라오며 물을 토해낸다.

계속 기침을 해대는 규석. 괴로워하며 괴성을 질러댄다.

바닥에서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규석. 화장실 밖으로 힘겹게 기어간다.

규석의 뒤, 화장실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차게 흘러나와 욕조와 세면대 속 물이 흘러넘쳐 바닥을 적시고 있다.

고통스러운 듯 가빠지는 규석의 호흡.

어두운 화장실 밖, 혜영이 우두커니 서있다.

혜영: 또 날 버리고 도망칠거야?...

규석: (혜영을 올려다보며) 아니야...

혜영: 이대로 도망치면,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어.

규석: 넌 진짜가 아니잖아... 혜영인 이미 죽었어.

규석의 뺨을 어루만지듯 손으로 감싸는 혜영.

혜영: 진짜라고 믿으면 돼... 그럼 모든게 편해져..

규석의 홀린듯 멍한 얼굴.

바다
혜영의 웃는 얼굴 인서트
파도 인서트
혜영의 무릎에 누운 규석, 둘의 뒷모습 투샷.
혜영과 손을 잡고 걷는 규석.
물고기의 벌름거리는 아가미.
폐

가빠지는 규석의 호흡

화장실의 물이 흥건하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차게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거슬릴 정도로 크게 들린다.

규석이 일어나 앉는다. 어느새 혜영은 없다. 규석의 뒷모습. 잠시 무언가 고민하는 듯 하더니, 입에 손을 넣는다. 꺼억꺼억- 소리를 내는 규석. 도드라진 갈비뼈와 굴곡진 척추뼈가 위아래로 움직인다.

더욱 크게들리는 물이 세차게 흘러나오는 소리.

이윽고 규석의 웅크린 다리 사이로 보이는 피와 함께 떨어지는 검붉은 폐.

폐가 떨어지고, 규석이 일어선다.

그와 동시에 마치 진공상태인 듯, 사라지는 모든 소리.

다시 화장실로 들어와 화장실 거울 앞에 선 피투성이의 규석. 입가에 묻어있는 피.

거울 속 규석은 그 어느때보다 몸이 수척해보이고 마른 몸에 퀭한 눈이다.

규석이 초시계를 본다. 알 수 없는 글자들로 기록되어 있는 초시계.

초시계를 세면대에 내던지는 규석. 초시계가 부서진다.

화장실 밖에서 꺼억-꺼억- 대는 숨 넘어가는 소리가 다시 들리자 규석이 화장실 밖을 본다.

어두운 화장실 밖. 규석이 토해낸 검붉은 폐.

규석이 욕조로 시선을 돌려 욕조 속으로 들어간다.

욕조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규석. 마치 임산부 배 속의 태아처럼 웅크려 있다.

S#11. (환상) 바다/(노을)

고요한 바다.

여자의 무릎에 무릎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규석, 여자의 손이 규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머리카락을 넘겨준다.

머리카락이 젖으며 축축한 액체가 머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낀 규석.

위에서 들려오는 숨 넘어가는 소리. 꺼억- 꺼억-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돌려 위를 바라보고는 무언가를 본듯 표정이 굳어진다.

다시 고개를 돌리는 규석.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본다.

END.